

보도자료

2011년 1월 4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 과장(☎750-2330)
 디지털방송정책과 현창현 사무관(☎750-2338) chyun@kcc.go.kr

방통위, 전국 도서지역 『TV수신환경 실태조사』 착수

· 전국 400여개 도서의 가구별 TV시청행태 · 난시청 현황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전파진흥원(원장 유재홍)은 도서지역 주민들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400여개 도서지역에 대한 'TV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상파 TV방송 시청환경이 열악하였는데, 이번에 TV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적·환경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의 정부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송수신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TV수신환경 실태조사>

조사기관	■ 방통위, 중관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자체, 한국갤럽 등의 합동조사
조사목적	■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 및 난시청 해소 추진
조사기간	■ '11년 1월~3월(약 3개월)
조사대상	■ 경기도 등 7개 광역단체의 33개 시군구 405개 도서 약 5만 9천 가구 중 9,000 표본(※교량 연결 도서 제외)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10가구 미만 도서는 전화조사)
조사내용	■ (시청행태)가구별 TV시청행태(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 (수신환경)직접수신가구 안테나 관리 상태, 마을공시청설비 등 ■ (송수신환경)난시청 실태, 지상파TVR 및 중계유선 여부 등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DTV 구매 보조금(10만원) 지급 (또는 디지털 컨버터 무상 보급), 안테나 개보수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송수신 인프라 보강이나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지상파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보조국(또는 소출력중계기) 설치, 마을공시청 설비 구축, 위성수신기 보급 등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전국의 지역과 주변 환경에 상관 없이 깨끗한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누구나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누리게 할 계획이다. 끝.